

10억 송이 가을 꽃 '활짝'...엘로우시티 가을 추억 '가득'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10월 1~13일

'엘로우시티' 장성에 꽃향기가 가득하다. 황룡강에 10억 송이의 가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기 때문이다.

장성에서는 10월 1일부터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이하 노란꽃잔치)가 열린다. 13일까지 황룡강 일원에서 펼쳐질 올해 노란꽃잔치는 지난해보다 더욱 풍성하게 조성된 꽃 정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광객의 눈길을 끈다.

● 가을꽃 10억 송이 '활짝'

장성군은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황화코스모스와 핑크몰리, 천일홍과 백일홍, 국화, 해바라기를 더욱 풍성하게 심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수수꽃과 조꽃, 메밀꽃을 심어 보다 다채로운 색깔을 냈다.

올해 노란꽃잔치에는 축제의 테마인 '컬러(color)', '이야기(story)', '빛(light)'을 주제로 한 대규모 테마정원도 조성됐다.

컬러를 주제로 한 '오색정원'은 제2황룡교-서삼교 구간에 1.4km 가량 조성됐다. 각종 꽃이 조화롭게 꾸며졌으며, 유엔아이(You&I) 가든과 장미터널 등 포토존도 설치돼 있다.

이어지는 테마 정원은 이야기를 주제로 한 '황룡정원'이다. 황룡강은 강물 속에 숨어 사는 황룡 '가온'이 밤마다 사람으로 둔갑해 마을 사람들을 몰래 돕는다는 전설을 지니고 있다. 서삼교-장안대교 1km 구간에 조성된 황룡정원에는 황룡 전설을 주제로 한 다양한 아이템들이 준비됐으며, 국화와

컬러·이야기·빛 주제 대규모 테마정원 감탄 절로 공연·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 장성의 맛 느끼는 '푸드쇼'도

백일홍으로 구성된 정원 또한 고혹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컬러'에서 '이야기'로 연결된 테마정원은 황룡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황미르랜드에 조성된 '태양정원'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 장성군민이 함께 가꾼 해바라기를 비롯해 연꽃과 수수꽃, 조꽃으로 이뤄진 웅장한 규모의 태양정원은 '빛'을 주제로, 장안대교에서 황미르랜드까지 약 0.8km 구간에 마련됐다.

● 영무새 특별체험관 '주목'

노란꽃잔치의 개막식은 '장성군민의 날'인 1일 오후 6시에 열린다. 군은 노란꽃잔치가 모든 군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거버넌스 축제'임을 되새기기 위해 개막식과 장성군민의 날 기념식을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

노란꽃잔치 기간 중에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장성지역 예술인들이 펼치는 백양 예술제와 지역 음악인들의 열린 음악회, 문불여장성 백일장, 장성시화전, 미협회원 작품전, 엘로우 미술전시회 등이 다채롭게

열려 축제공간에 예술의 향기를 가득 채운다.

또 체험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지난해 노란꽃잔치 기간에 처음 선보이며 가족단위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었던 영무새 특별체험관이 올해에는 2배 이상 커진 1800㎡ 규모로 개관했다. 실내 체험관에서는 사랑앵무 등 2000여 마리의 영무새를, 야외시설에서는 타조와 공작 등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

6일에는 장성의 맛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요리 연구가인 '빅마마' 이해정과 여경래, 개그맨 임혁필, 권진영, 이승환이 함께 하는 '북벤져스 빅마마' s 쿠칭쇼와 장성의 특산품을 이용해 황금밥상을 출품하는 제1회 장성 황금 요리 경연대회, 황금요리 푸드쇼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진다.

● 황룡강서 즐기는 풍성한 공연

노란꽃잔치 기간 중에 장성군을 방문하면 유명 음악인들의 공연을 만끽할 수 있다. 필암서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행사가 열리는 3일에는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부른 안치환의 콘서트가 펼쳐진다.

5일에는 라디오 공개방송이 진행된다. '그대 모습은 장미' 등 히트곡을 내며 80-9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민혜경을 비롯해 유현상과 김학래 등이 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9일 열리는 군민노래자랑에는 '천천천'을 부른 가수 편승엽과 걸그룹 베이비부부의 축하공연이 예정돼 있다.

12일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노란꽃으로 물든 정원음악회'가 열린다. 황룡강을 찾은 많은 이들에게 가을 정취에 어울리는 감미로운 음악을 들려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유령의 음악 앨범'을 통해 다시 사랑받고 있는 가수 유령이 출연해 팝송과 영화음악 등 가을의 낭만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음악을 관객에게 선물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대한민국 대표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해 노란꽃잔치에 역대 축제 가운데 가장 풍성한 가을꽃을 마련했다"며 "웅장한 규모의 테마정원과 영무새 특별체험관, 다양한 콘서트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황룡의 머리부분에 해당하는 황미르랜드에 해바라기 꽃들이 황금빛 자태를 뽐내고 있다.



장성읍 황룡강변 오색정원에 형형색색의 국화와 백일홍 등이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영무새 특별체험관.

축제 더 알차게 즐기는 '세 가지 팁'

1. 장성사랑상품권으로 10% 할인 결제

올해 노란꽃잔치에서는 축제쿠폰 대신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

장성군에 등록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성사랑상품권은 5000원권과 1만원권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농·축협 및 축제부스에서 구입할 수 있다.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구입이 가능하며, 구입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군은 10월 20일까지 발행을 기념해 1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무새특별체험관과 전통열차 체험 때 장성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추가로 1000원이 할인된다.

장성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총 1040여 개 점포이며, 가맹점 조회는 장성군 대표 홈페이지(소통과참여-장성사랑상품권-가맹점조회)에서 할 수 있다.



2. 일자리 박람회+귀농귀촌 '알짜 정보'

축제라고 해서 마냥 즐기면 하라는 법은 없다.

노란꽃잔치에는 장성군의 우량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엘로우시티 장성 일자리 박람회'와 귀농귀촌에 대한 '알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농귀촌 가든파미'가 열린다.

황룡강 일원 장성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지게 될 엘로우시티 장성 일자리 박람회는 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리며, 지역의

우량기업 60여개 업체가 참가한다.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박람회에서 군은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매칭시켜주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박람회는 총 7동의 부스에서 현장면접과 구직상담, 구인정보 제공, 직업체제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50여개 업체의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행잉(hanging) 꽃바구니 만들기를 통해 플로리스트를 체험해볼 수 있는 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귀농귀촌 가든파미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가든파미에는 정원(garden)과 농장(farm), 박람회(fair)의 합성어로 축제기간 동안 장성군의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방문객들에게 실속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귀농귀촌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꽃길·쉼터 확대하고 무료 셔틀버스 운행

장성군은 올해 노란꽃잔치에서 관람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배려했다.

군은 우선 황룡강 꽃밭마다 효율적인 관람이 가능하도록 꽃길 관람동선을 조성했

다.

관람객에게는 편안한 꽃길 감상이 가능해졌으며, 무분별한 꽃밭 난입으로 인한 훼손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곳곳에 쉼터와 그늘막을 설치하고 이를 관람동선과 연결해 관람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축제기간 동안 장성읍과 황룡강 축제현장을 왕복하는 정기 순환버스도 무료로 운영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리뉴얼된 객실과 도심 속 휴양시설에서 쾌적하고 편안한 여유를 느껴보세요

호텔과 레저, 온천 사우나가 한 곳에

- 무등산을 품은 자연 환경
- 가족 모두를 위한 부대시설
- 1000대 규모의 대형 주차장
- 모던하고 쾌적한 객실
- 도심 속 양질의 온천수 사우나
- 각종 행사를 위한 다양한 연회장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64번길 14-10
문의 062-226-0011 www.hotelmudeungpark.co.kr